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서창옥/편집인 : 나은우/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4-4146/전송 02)794-3146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우리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12년 2월 현재 206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169, 의과대학 학술지 10, 의학 외 분야 학술지 27)이며, 개인회원이 41명이다.

또한, 특별회원은 (주)갑우문화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서형디자인, (주)신원데이터넷, 아이비기획, 아카데미,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XMLink Co., Ltd., InfoLumi,

Google Inc., NHN(주),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ARCHIVE, Editage 총 1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 Fax: 02-794-3146)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런 프로그램 소개'로, 총 14개 강의로 진행되었다. 참가자 중 설문에 참여한 28명은 이번 아카데미에 대체로 만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간 부족과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실제 적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부 평가 항목과 평점(5점 만점)은 다음과 같다.

- 편집 실무에 도움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를 돕고, 최근 정보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대한 적합성 : 4.8점
- 과정 이해에 도움 되는 교재 : 4.2점
- 과정에서 다른 내용을 편집과정을 통해 수행할 실제 응용성 : 4.2점
- 재미있는 강의 구성 : 4.4점
- 새로운 주제나 집중 주제를 다루는 과정이 있으면 재참석 여부 : 4.63점

본 협회에서는 국내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회원 학술지 편집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월 16일 목요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는 총 142명이 강의에 참석하여 열띤 질의·응답을 펼쳤다.

이번 과정은 '편집 실무에 도움이 되고, 전문가 심사의 질을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이해를 돕고, 최근 정보관련 지식을 습득한다'는 주제 아래 오전 세션은 '학술지 질적 향상을 위한 출판 전략', 오후 세션은 '출판 윤리 및 관

과거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참가 경험을 묻는 질문에 109명(76.7%)이 처음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참가 20명, 2회 참가 5명, 3회 참가 5명 순이었다. 2008년 1회 아카데미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도 3명이나 있었다.

자세한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강의 슬라이드의 일부는 의 편집 홈페이지(kamje.or.kr)의 '소식지/Workshop'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메디칼 업저버>와 공동으로 신년특집 '국내 의학 학술지를 말한다' 기획



본 협의회에서는 보건의료 전문 주간지 <메디칼 업저버>와 공동으로 '국내 의학 학술지를 말한다'를 신년특집으로 기획하고 4면에 걸쳐 '국내 의학 학술지 국제무대 진출'(서창욱 회장), '소규모 학술지 통폐합으로 질 향상 이뤄야'(홍성태 부회장), '의편협 평가도구 국내 학술지 발전 밑거름'(오세정 기획평가위원장), 'JGO 부인종양학 최고 학술지에 도전'(김재원 기획평가위원)이라는 소주제로 글을 기고했다.

1월 30일에 발행된 이번 신년특집호를 통해 의편협은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 기사는 <메디칼 업저버> 홈페이지(www.monews.co.kr)의 e-Newspaper 게시판에 접속한 후 60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안내

일시 : 2012년 3월 27일 오후 2시 정기총회, 오후 3시 심포지엄
장소 :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정기총회>

14:00-14:40 정기총회

<심포지엄>

주제: 의학논문의 저자됨(Authorship)과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15:00-15:40 저자됨이란?

15:40-16:00 다기관 공동연구 논문, 여러 학술지에 공동게재에서 저자됨

16:00-16:30 이해관계란?

16:30-17:00 COI의 제출과 표기

배종우 (의편협 출판윤리위 간사, 경희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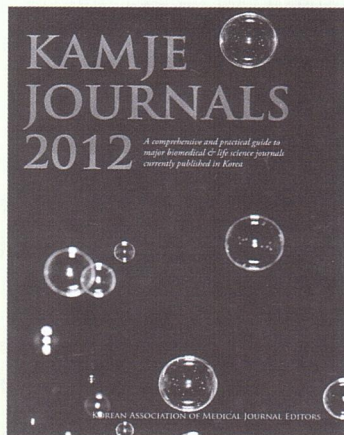
홍성태 (의편협 부회장, 서울의대)

김수영(의편협 출판윤리위원, 한림의대)

한동수(의편협 출판윤리위원, 한양의대)



KAMJE JOURNALS 2012 발간



편집: 이춘실(의편협 정보관리위원)

발행: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DOI 10.3335/KAMJE.Journals.2012

ISBN 978-89-963367-1-6

<KAMJE JOURNALS 2012>가 발간됐다. 이 책에는 의편협 단체 회원인 의학 및 관련분야 학술지 206종에 대한 서지사항, Aims & Scope, 편집인과 발행인, 주제 분야(NLM MeSH, SCI), 등재 데이터 베이스 등 주요 학술지 정보가 최근호의 커버 이미지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담겨있으며, <KAMJE JOURNALS 2009> 발간 이후 대한민국 의학학술지의 변화와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WorldWideScience Alliance 가입

2011년 11월 KoreaMed Synapse가 국제적인 과학 데이터베이스인 WorldWideScience(WWS) Alliance에 가입했다. WWS Alliance는 전 세계 과학 데이터베이스와 포털로 구성된 글로벌 과학 관문으로 multilingual transl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reaMed는

이미 회원으로서 의편협 단체회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학술지의 이용률을 높인 바 있다. KoreaMed Synapse까지 WWS에 가입하면서 의편협 단체회원 학술지가 worldwidescience.org에 노출되어 의편협 단체회원 학술지의 전 세계적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8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2011년 12월 8일(목)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제2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가 열렸다. 이번 평가회는 의편협 회원 학술지 중 KoreaMed

에 미등재되었던 학술지 10종이 평가를 받아 10종 모두가 평점 2.5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다.

1. Kosin Medical Journal (평점 3.2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학술지로 연 2회 발행된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1년 6월호(26권 1호)로서 종설 1편, 원저 11편, 증례보고 4편으로 총 16편이 게재되었다. 표지에서 URL이 학술지가 아닌 고신대학교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투고규정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에서는 오자가 있었다. 저자 소속기관의 표기 체제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의 체재와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기술한 방식이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이 있으며, 초록에서 중심단어에 약어를 사용한 논문이 있다. 표에서 각주에 약어해설이 누락되거나 수직선이 들어 있는 논문이 있고, 사진에서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으나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도형그림에서 글씨와 그림의 크기가 보기에 너무 작은 논문이 있으며, 그림의 작도가 다소 전문적이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투고규정을 보완하고, 저자표기, 초록, 참고문헌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대한갑상선학회지 (평점 2.86)

대한갑상선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2회 발행된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1년 5월호(4권 1호)로서 종설 4편, 원저 3편, 증례보고 3편, 임상화보 1편이 게재되었다. 표지에 오류는 없으나 표지도안을 조금 더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투고규정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아 학술지 체재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의 기술방법을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을 참조하도록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NLM citing medicine으로 고쳐야 한다. 영문 제목이 한글 제목과 내용과 상반되게 기술된 논문이 있어서 KoreaMed에 초록을 등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문제목을 수정해야 한다. 저자 소속기관의 표기에서 체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초록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약어를 해설 없이 사용한 논문이 있고, 초록이 아예 누락된 논문이 있다. 본문의 체재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투고규정이 애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기술한 방식이 투고규정에 위배되는 논문이 있다. 표와 도형그림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사진에서 제목에 오자가 있는 논문이 있고, 사진설명에서 염색방법과 배율이 누락되거나 약어해설이 없는 논문이 있다. 또한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그림에서 출처만 기술했을 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 여부를 밝히

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체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고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타 논문에서 인용된 자료의 저작권 문제를 포함한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Korean Journal of Bone Metabolism (평점 3.57)

대한골대사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연 2회 발행된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1년 5월호(18권 1호)로서 종설 1편, 원저 7편, 증례보고 1편이 게재되었다. 표지에 오자가 없고, 표지도안도 세련되고 미려하다. 영문 논문의 경우 한글 목차에도 영문 제목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문 논문이라도 한글제목을 별도로 만들어 목차에 실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고규정은 논문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나 P값의 표기를 보통체와 이탤릭체로 병기해 놓아 통일이 필요하고, 참고문헌의 기술방법을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을 참조하도록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NLM citing medicine으로 고쳐야 한다. 제목과 저자 사항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저자 소속기관의 표기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초록에서 objective의 문장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한글초록에서 글자 수가 투고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논문이 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고, 한글 논문은 결론부가 있으나 영문 논문에선 없어서 체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표에서 오자는 발견되지 않으나 약어해설이 누락되거나 표 안에 가로줄이 있는 논문이 있다. 사진에서도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이 있으며,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크기가 작아 식별하기 힘든 논문이 있다. 도형그림은 작도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오류 없이 잘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며, 투고규정을 보완하고, 초록과 참고문헌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훌륭한 학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평점 2.68)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투고규정에 발행 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간 발행 회수를 알 수 없다. 금번 평가대상은 2011년 5월호(23권 1호)로 종설 1편, 원저 6편, 증례보고 2편이 게재되었다. 표지와 목차에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투고규정에서 오자는 없으나, 책임저자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참고문헌을 한글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자 점검표가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목과

저자 사항에서 오류는 없으나, 교신저자의 연락처가 누락되어 시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에서 objective의 문장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색한 문장이 발견되며, 중심단어로 약자를 사용하고 있다. 투고 규정에는 서론이라는 제목 없이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모든 논문이 서론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서 투고규정을 고치거나 투고규정에 맞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서지사항의 기술에서 웹문서의 경우 검색일이 누락되거나 투고규정과 달리 호수를 기술한 논문이 있다. 표에서 약어해설이 누락되거나, 가로줄이 있는 논문이 있다. 사진에서도 약어해설이 누락된 논문이 발견되며, 전반적으로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도형그림에서 오류는 없으나 글씨 크기가 작거나, 작도가 전문적이지 못한 논문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나, 투고규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초록과 참고문헌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대한수의학회지 (평점 3.60)

대한수의학회에서 연 4회 발행하고 있고 평가대상이 된 2011년 9월호(51권 3호)에는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의편협 납본일이 지난 1년간 4호중 3호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발행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학술지의 경우 투고규정에서 사소한 오타가 발견되고 규정이 짧은 논문작성요령의 구체적 명기가 되어있지 않으며 취급논문의 범위와 발간의 간기, 이해관계의 규정, 책임저자의 역할 등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영문논문을 게재하므로 영문투고규정이 필요하다. 일부 논문에서 '결론'이 있기도, 없기도 하여 체제의 일관성이 없고 논문 수락일 등의 표기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통일시켜야 한다. 표의 경우 가로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약어설명이 불충분하다. 그림의 경우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설명이 없는 그림도 있어 편집 시 주의를 요한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이나 투고규정을 좀 더 정비하고 편집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하면 더욱 인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치과보존학회지 (평점 3.43)

격월로 발행되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평가대상지는 2011년 11월호(36권 6호)이고 Reader's forum 1편, review article 1편, basic research 4편, case report 3편이 게재되었다. 현재 실물에 표기된 학술지의 약어가 J Kor Acad Cons Dent로, 공식약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학술지 첫 페이지의 aims and scope는 영어로, 뒤편의 투고규정은 한글로 되어 있으며 영문 논문을 실고 있으나 영문 투고규정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투고규정에 명기된 홈페이지로는 논문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소를 수정해야 한다. 투고규정에 일부 사소한 오타가 있었다. Reader's forum은 증례의 뒤로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문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글자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좋다. 부적절한 중심단어가 있고 본문의 체제가 일정하지 않으며 초록의 경우에도 일부 문단이 구분되어 있어 모두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 참고문헌 기재 시 단행본 기재방식의 오류가 있고 표와 그림의 글씨체가 다른 점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표에 가로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약어 설명이 불충분하며 그림에서 표기된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색을 선택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7. Laboratory Medicine Online (평점 4.17)

대한진단검사의학과에서 발간하는 온라인 학술지로서 연 4회 발행되고 있으며 평가대상 2011년 10월호(1권 4호)에는 번역 1편, 원저 7편, 증례 2편이 게재되어 있다. 이 학술지는 한글 학술지로 투고규정과

논문의 체제에서 잘 관리되어 있다. 이례적으로 영문 논문의 번역본을 학술지 앞에 게재하였는데 표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어 KoreaMed 등재 이후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영문으로 게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논문 종류별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자기술방식에서 소속의 표기에서 지역명이 누락된 것이 있다. 일부 표나 그림에서 약어가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한글 학술지로 앞으로 지금과 같이 관리된다면 더 질 높은 학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Safety and Health at Work (평점 4.4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연 4회 발간한다. 2011년 9월에 발간된 2권 3호에는 종설 1편과 원저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전체적인 편집이 세련되었고 모든 지면을 컬러로 인쇄하여 본문의 제목, 사진, 그림, 표에 색이 들어가서 알아보기 좋았다. 게재 논문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투고한 것이어서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 학술지이지만 모든 원고에 대해 원어인 교정을 거쳐서 영문 구성이 매끄러웠다.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제 색인중 하나인 CA Search에 등재된 상태이다. 평가대상이 되는 학술지중 온라인 투고 시스템의 운영, 세련된 편집, 표지에 QR 코드의 배치 등 체제가 잘 정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DOI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9.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평점 3.61)

순천향의학연구소의 공식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된다. 심사 대상이 된 17권 1호(2011년 6월 발간)에는 원저 6편, 증례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표지도안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되었고 내부 지면을 모두 컬러로 인쇄하여 제목, 사진, 그림, 표의 시인성이 우수했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어 여러 번 학술지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때마다 ISSN을 부여 받아서 이력 관리가 잘 되고 있었고 간기 준수도 우수했으며 참고문헌 오류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논문에서 영문 초록에 문법상 어색한 문장이 보이고 영문 제목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보였다. 또한 논문 구성에 있어서 소제목의 분류에서 부분적 오류가 보이고 있어서 영문 교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수술에 사용된 기구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하여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 The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평점 3.56)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의 공식 학회지로서 연 4회 발간된다. 심사대상이 되는 11권 2호(2011년 9월 발간)에는 종설 5편, 원저 3편, 증례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헬리코박터를 형상화한 표지도안은 간결하면서 깔끔했으나 배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내부 편집에서 약간 조절하면 지면의 수를 조절하면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이 있어 보였고 저자 점검표는 아주 상세하기는 했지만 좀 간결하게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투고 논문 수가 늘어서 간기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기에서는 결호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되는 문제가 생겼다. 종설에서 논문 구성 요소가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술 장비의 종류를 설명하는 그림은 카탈로그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아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부 지면만을 컬러로 인쇄하다 보니 현미경 사진에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배울을 명시해야 하는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진도 발견되었다.